

코스트코,이케아 광명 입점저지 대책위원회

(경기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광명가구협회, 광명새마을상가, 광명새마을시장, 안양남부시장, 안양관양시장, 안양호계시장, 안양중앙시장, 안양박달시장, 군포산본시장, 안양1번가, 평촌역상가, 의왕시가구협회, 평촌1번가, 인덕원상가, 산본중심상가, 군포역전시장, 시흥원시삼미시장협동조합, 수원미나리광시장조합)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노동담당, 사진부
발신	* 코스트코,이케아 광명 입점저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남현, 안경애, 이상봉 * 문의 : 노병일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 ***-****-**** / 02-2619-9783
제목	코스트코 광명점은 자율조정에서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요구를 받아드려라!
날짜	2012. 12. 10(월)

- 보도 자료 -

코스트코 광명점은 제3차 자율조정에서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요구를 받아드려라!

12월15일(개점일)에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 할 것이다.

1.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과 광명전통시장은 지난 10월8일 “방대한 규모의 코스트코는 인근 중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인접도시까지 광범위하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내용으로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2. 중기청장은 우리의 요구가 타당함을 인정 2012년11월20일 코스트코코리아의 광명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를 하였다. 이에 11월30일 제1차 자율조정회의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12월7일 제2차 자율조정회의에서는 상호 입장차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었다. 우리는 상생의 취지에서 상당부분을 양보하며 협상에 임하였고 단한가지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3차회의에서 논의기로 하였다.(상세 협상 진행 내용은 타결 전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
3. 2012년12월11일(화)10:00 시청에서 제3차 자율조정회의가 예정되었다.그러나 코스트코는 12월15일을 개점일로 잡고 개점을 강행하려하고있다.
4. 이에 본 대책위원회는 12월11일(화) 제3차 자율조정회의에서 지역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코스트코는 중기청의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들여12월15일(토) 개점일을 협상 타결시 까지 연기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협상이 타결 되지 않음에도 개점을 강행시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한 싸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